광남일보

동구 국가유산야행·K-스타 챌린지 '인기'
국가유산 보고 골목여행…충장·금남로 '활기' 6

'음악·봄꽃' 장성 황룡강 꽃길축제 성큼
5월 9일 전야제…이찬원 등 축하무대 8

해남 대표쌀 '땅끝햇살' 일본 수출물량 완판
군, 브랜드 가치 제고…장기 수출 조성 등 계획 10

전남 1051명 자원봉사자 활동 빛났다
전국생활체전 기간 곳곳서 봉사활동 14

조간 제783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음력4월1일)

호남이 선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최종 득표율 89.77% 역대 최고 '압도적'
2위 김동연 6.87%·3위 김경수 3.36%
"국민 대통합…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호남서 압승 '민주당 적자' 정통성 확인

광주와 전남 등 호남권이 선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종 누적득표율 89.77%를 올려 당 경선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제주·강원 경선에서 이 후보가 91.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후보 5.46%, 김경수 후보 3.01%였다. ▶관련기사 2·3·4·15면

앞서 이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에 3연승을 거둔데 이어 이날까지 파죽의 4연승으로 압도적 승리를 차지했다.

지역별 순회경선 결과와 국민선거인단, 재외선거인단 결과에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89.77%)은 역대 경선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김동연 후보 6.87%, 김경수 후보 3.36%였다.

이전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은 지난 15대 경선(1997년 5월 19일)에서 김대중 후보가 올린 77.53%였다.

이어 △16대 대선후보경선(2002년 4월 27일) 노무현 후보 72.2% △19대 대선후보경선(2017년 4월 3일) 문재인 후보 57.0% △18대 대선후보경선(2012년 9월 16일) 문재인 후보 56.5% 등의 순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1위 득표자의 누적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치르려고 했지만, 결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6일 호남 경선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둬 지난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이어 '구대명'(90%대 득표율로 후보는 이재명) 형세를 이어갔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88.69%를 차지했고, 이어 김동연 후보 7.41%, 김경수 후보 3.90%였다.

호남권 경선 투표율은 53.67%(권리당원 53.59%, 전국대의원 63.37%)로, 충청권 경선 투표율 57.87%(권리당원 57.62%, 전국대의원 73.33%), 영남권 경선 투표율 70.88%(권리당원 70.85%, 전국대의원 71.73%)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올린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핵심 텃밭인 호남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당의 적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남 출신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고, 결국엔 대통령을 탄핵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른 것이 되려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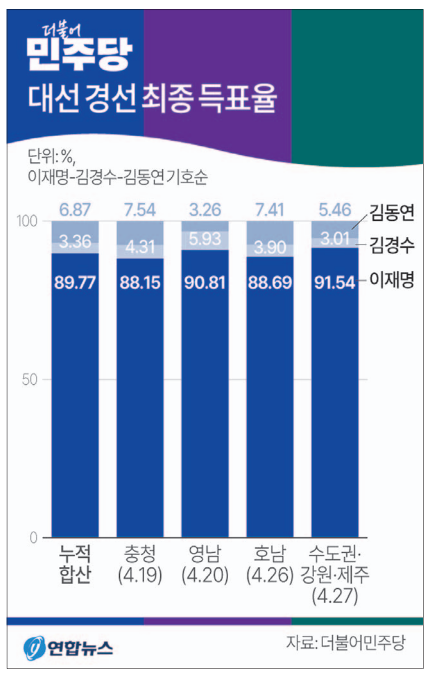
지난 4년 전 대선 경선에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돼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게 되자 지지자들이 이번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직자는 또 "특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결집했다"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니 불만은 접어두고 대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 해킹 공격…혹시 내 개인정보도?

"유심 바꿔줘"…SKT 대리점 '북적'

유심 재고 부족 불만 표출
이용자들 상담 몰려 '한숨'

오늘 오전부터 무상 교체
요구 물량 확보될 지 의문

"월평균 판매되는 유심(USIM)이 10여개 수준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다 소진됐어요."

외부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각 대리점에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유심 재고 부족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27일 SK텔레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을 인지했다. 보안담당자가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장비를 격리했지만, 해커는 이미 서버에 침투해 유심 관련 정보를 빼간 뒤였다.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회선,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정보 등이 담겨 있다.

유심이 해킹 당하면 금융 피해, 개인정보 유출, 신원 도용, 디지털 자산 손실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추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리점에 몰려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에 방문한 광산구의 한 T월드 매장에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손님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리점 직원들은 '유심 재고가 없다', '주변 대리점에 재고 확인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매장 직원에 재고 현황을 물어보고 불만을 드러내며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화로 유심 재고를 묻는 문의전화도 끊이질 않았다.

30대 A씨는 "영업직을 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저장된 연락처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유심을 교체하려고 방문했다"며 "2번째 방문한 대리점인데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유심 재고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는 사연도 다수 올라왔다.

대다수의 글은 '집 근처 대리점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재고가 없다고 한다', '대리점 여러 곳에 재고가 있는지 물어보고 겨우 유심을 교체했다' 등의 내용이었다.

한 대리점 직원은 "한 달 분량으로 매장에서 보유 중인 유심이 10여개인데 2~3일 만에 다 소진됐다. 주변 대리점에 연락해 재고를 받아오기도 했다"며 "매장 방문객뿐만 아니라 전화 문의도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고 토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무료로 교체한다. 대상은 18일 밤 12시 기준 가입자로 1회 한정 제공된다.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요금 할인 등 방법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